

쌀값은 '나락' 농심은 '벼랑'... 답답한 '米래'

쌀 전면개방 '관세화' 27일째 선언 ... 農道 전남 비상
농민단체 "반값 쌀 밀려올 것" 반발 지역 공청회 무산

쌀 전면개방인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농도(農道)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. 정부가 사실상 쌀 전면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. <관련기사 3면>
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"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

사 인제개발원에서 세계무역기구(WTO)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"고 밝혔다.
정부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(WTO)에 쌀을 관세화할지, 관세화를 한 차례 더 미룰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. 이를 위해 쌀 관세화에 대한 전

국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있다.
하지만 쌀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농민들은 설명회 등을 저지하고 있으며, 19일 나주 농식품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설명회도 농민 반발로 취소됐다. 앞서 지난 18일 강원도에서의 설명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. 또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도 파행이 예상된다.
정부는 현재 관세를 부과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. 더 이상 쌀 수입을 막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고, 해마다 늘어가는 의무수입 물량

대신에 개방 후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낫다는 것이다.
쌀 관세화는 쌀 수입을 금지하고 일정량을 의무수입했던 기존 방식을 포기하고, 전면 개방하는 대신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.
한국은 지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(UR) 협상이 타결된 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지난 20년간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. 이후 같은 방식으로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미뤘고, 올 연말까지는 전면개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.

정부는 사실상 쌀 관세화 입장을 확정했고, 지난 16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쌀 관세화 문제를 포함한 통상현안 지역설명회를 열고 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대부분 무산됐다.
정부는 이달 27일째 관세화를 선언하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이에 농민단체 등은 "한미·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쌀이 국산 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밀려올 것"이라며 반발하고 있다. 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전교조 15년만에 법외노조 됐다

지위유지 소송서 패소
교육부, 전임자 복직 조치
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.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에서 근무하는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. <관련기사 6면>
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부장판사 방정우)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'해고된 사람'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,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.
재판부는 "(해직자 가입으로)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"며 "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"고 지적했다.
재판부는 "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의 법치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"이라며 "이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"고 강조했다.
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.
하지만 광주·전남 등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시·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 지는 불투명해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일선 시·도교육청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밀짚 태우기... 불타는 농심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은 19일 광주시 남구 원산동의 한 들녘에서 농부가 밀 수확 후 2모작을 하기 위해 밀짚을 태우고 있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오늘의 월드컵 (20일·한국시간)
일본 C조·오전7시 그리스 E조

내일의 월드컵 (21일·한국시간)
이탈리아 D조·오전1시 코스타리카 B조
스위스 E조·오전4시 프랑스 F조
온두라스 E조·오전7시 에콰도르 D조

월드컵 스코어보드
호주 2:3 네덜란드
스페인 0:2 칠레
카메룬 0:4 크로아티아

광주시청 비정규직 없앤다

윤장현 시장 당선자,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
기간제 45·무기계약직 257명 정규직화 검토

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청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 윤 당선자의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가 된다.
다만, 정규직화돼 있으나 급여인상이 미미하고, 공무원연금 혜택도 없는 등 급여 및 복지 수준은 비정규직인 '무기계약직'의 정규직화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'전 직원 정규직화'라는 목소리도 높다.
민선 6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인 '희망광주 준비위원회(이하 준비위)' 이광이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"윤 당선자가 오전 회의에서 시청과 시 산하 기관의 비

정규직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"며 "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깊이 고민하고, 취임 초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자는 말도 했다"고 밝혔다.
이 대변인은 또 "윤 당선자가 정규직 전환 예산이나 정원 등 제도(법)적인 문제도 꼼꼼하게 검토해 광주만의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다"면서 "(광주시장이) 같이 일하는 동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좋은 일자리 1만개 공약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"고 덧붙였다.
현재 광주시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45명이며, 정년은 보장되지만 급여 등

의 수준이 비정규직과 비슷한 무기계약직은 총 257명이다.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 등 공무원 수준의 기본 복지를 희망하고 있다.
이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이같은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"당연히 살펴볼 부분이다. 또한 시 산하 지하철 역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과 시청은 물론 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자 등의 근무 여건이나 신분 전환 문제도 들여다 볼 계획"이라며 "4년 임기동안 최소한 시 조직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해 법과 제도, 예산 등의 제약이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, 그

도 안되면 광주만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의 뜻"이라고 말했다.
한편, 준비위는 인사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는 "광주시의 일반 승진·전보 인사는 취임에 맞춰 시행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후속 인사는 조직경영 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에 하겠다"고 밝혔다. 준비위는 또 민선 6기 시청 방향을 '더불어 광주'로 확정했다. 시청 철학은 '시민을 위한 사람 존중 생명도시 광주'로, 시청 5대 목표는 참여의 자치도시, 안전한 푸른도시, 따뜻한 복지도시, 넉넉한 경제도시, 꿈꾸는 문화도시로 정했다. 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광신대학교
사랑과 감사의 60년
1954 60th 2014
믿음과 소망으로 100년

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
The New C-Class

Mercedes-Benz

메르세데스-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(주) 광주 점주장
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/ TEL 062)276-0001

정규공인 표준 연비 및 환경
C 200 1,991cc, 1,509kg, 자동7단, 복합연비 12.1km/l (도시연비: 18.8km/l, 고속도로연비: 14.1km/l), 3단급, 복합CO₂배출량 144g/km
C 200 Avantgarde 1,991cc, 1,509kg, 자동7단, 복합연비 12.1km/l (도시연비: 18.8km/l, 고속도로연비: 14.1km/l), 3단급, 복합CO₂배출량 144g/km
C 220 BlueTEC Avantgarde 2,143cc, 1,625kg, 자동7단, 복합연비 17.4km/l (도시연비: 21.3km/l, 고속도로연비: 15.1km/l), 1단급, 복합CO₂배출량 111g/km
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,143cc, 1,625kg, 자동7단, 복합연비 17.4km/l (도시연비: 21.3km/l, 고속도로연비: 15.1km/l), 1단급, 복합CO₂배출량 111g/km
C 220 BlueTEC Executive 2,143cc, 1,625kg, 자동7단, 복합연비 17.4km/l (도시연비: 21.3km/l, 고속도로연비: 15.1km/l), 1단급, 복합CO₂배출량 111g/km

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, 운전방법,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.